

“자비심으로 인류공동체 구축 위해 노력하자”

中 우시...제4차 세계불교포럼
50여 개국 ‘불교교류 강화’ 등
9개항 공동선언문 채택 회향

“전 세계 불교도들이 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불교 단체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각국의 불교 서적 비교 연구와 불교사상 교류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1박2일간 중국 우시(無錫)시에서 열린 제4차 세계불교포럼에 참가한 세계 50여 개국 1000여 명의 불교지도자들은 포럼 폐막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럼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이 채택한 공동선언문에는 불교단체 협력, 교육 교류, 공익활동 강화, 청년 인재 양성, 이웃종교와 대화 등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불교도들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함께 원력으로 동행하며, 서로 교류하여 거울삼자(同願同行, 交流互鑒)’를 주제로 지난 24일 개막한 세계불교포럼은 세계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세계불교포럼이 국경과 인종을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현 시대와 인류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반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중국불교협회장 웨칭(學性)스님도 “그간 세계불교포럼은 참가자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우시 영산범궁에서 열린 제4차 세계불교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자비의 마음으로 인류 공동체 구축 위해 노력하자”고 마음을 모았다. 사진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포럼 개막식에서 축하하는 모습.

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며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실현을 위해 이곳에 모인 불교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동원동행(同願同行)하자”고 강조했다.

개막식에 이어진 분과토론은 △교류와 상호 귀감 △합작과 발전 △인간완성과 성불 △정심(淨心)과 정토(淨土) △전승과 적응 △계리(契理)와 계기(契機) △정신(正信)과 정행(正行) △책임과 담당 등 총 8개 주제로 진행됐다. 동국대 이사장 일면스님은 25일 분과토론에서

‘정신(正信)과 정행(正行)’을 주제로 발표하며 발심 수행의 원동력으로써 바른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면스님은 “바른 믿음은 모든 수행의 토대이며, 믿음에 의한 발심 수행은 생사업을 버리고 해탈업을 이뤄 끝내 열반을 증득하게 된다”며 “바른 믿음에 의해 바른 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무엇을 믿는가는 곧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하는 수행의 길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은 “마음이 청정하면 국

토가 청정해진다’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불교인들의 사명은 우리가 사는 지구촌과 우주법계를 정도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며 “중생이 중생의 탈에서 벗어나서 보살이나 부처가 되었을 때 참다운 불국토는 구현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 육바라밀의 실천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총지종 교육원장 회령정사와 진각종 교법연구상임위원 보성정사도 각각 인성과 불성, 책임과 담당을 주제로 분과토론에 참석해 발표했으며, 박창환 금강대 교수가 ‘21세기 세계불교의 세속화 경향에 대한 단상’에 대해 발표했다.

폐막식에서 왕조안(王作安)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계 각국 스님들이 한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고 우의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세계불교포럼이 중생을 위해 복을 기원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위해 포럼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만, 스리랑카,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등 이번 포럼에 참가한 각국의 불교 대표자들도 불교교류의 장으로서 포럼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며 세계불교포럼의 원만회향을 축하했다.

이번 세계불교포럼에는 종단협 회장 자승스님을 단장으로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성문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등 종단협 회장단과 동국대 이사장 일면스님, 총장 보광스님 등 불교지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중국 우시=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서울 전통사찰 위크’
10월31일~11월1일
53곳 중 어디로 갈까...

서울의 전통사찰과 우수한 문화유산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전승해 나가기 위한 ‘2015 서울 전통사찰 위크’가 31일부터 11월1일까지 이틀 동안 58곳의 사찰에서 펼쳐진다. 올해 2회째 시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31일부터 템플 오픈 데이(Temple Open Day)가 전통사찰 전역에서 시행되며, 도심 속 사찰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I Love Seoul, I Like Temple(스토리 콘테스트)’, ‘전통사찰 인증샷 투어’, ‘도심 속 전통사찰 버스투어’, ‘즐거운 산책, 흰 구름길 걷기’, ‘전통사찰 힐링 명상순례’ 등 투어프로그램을 비롯해 ‘템플스테이 체험’, ‘흥천사 불화장과 함께하는 불화 및 단청 그리기’, ‘국화축제와 함께하는 전통 문화체험’ 등이 진행된다. 또 조계사와 진관사 경내에서 작은 음악회도 열린다.

조계종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활발한 참여로 불교문화를 쉽게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고취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행사는 조계종 총무원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하고 총무원 문화부 등이 주관한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신문기사 2500건으로 본
‘한국비구니자료집’ 발간

한국비구니연구소(소장 본각스님)가 <신문기사로 본 한국비구니자료집>을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은 지난 2003년 출판한 <신문기사로 본 한국근현대비구니자료집>(전3권)과 2007년 펴낸 <신문기사로 본 한국비구니자료집>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신문기사자료집. 책에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불교계 신문과 일간신문에 실린 비구니 및 여성 불교 관련 기사를 발췌한 총 2500여건의 방대한 기사들이 담겨져 있다. 연구소는 이를 주제별로 나눠 전 3권의 책으로 정리했다.

이전까지 포고 항목에 포함돼 있던 템플스테이는 별도 소항목으로 분류해 게재했다. 연구소는 이번 자료집에 대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비구니 스님들 기사와 여성 불자들의 자료를 함께 엮어 내용이 더욱 풍성해 졌다”면서 “이런 변화는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의 활동이 많아졌고, 불교계 위상 또한 높아졌음을 뜻한다”고 평가했다.

소장 본각스님은 발간사에서 “면면히 이어온 작업들은 향후 <한국비구니사>를 편찬하는데 자료적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수행과 전법에 전념하는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의 활동상을 수집해 정리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역사적 진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10·27법난 35주년 법회 봉행
김화연 씨 ‘기도’ 미술전 대상

한국불교 최대 치욕사인 10·27법난을 되새기고 진상규명을 발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총무원은 지난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10·27법난 3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사회부장 정문스님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정치권력에 의해 강제로 탄압받은 법난의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며 “지난 시간을 거울삼아 위법망

총무원은 지난 27일 ‘10·27법난 3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명예회복심의위원장 지현스님이 미술전 특별상 수상자이자 10·27법난 피해자인 일선스님(오른쪽)에게 시상하는 모습.

구(爲法忘軀)의 정신으로 아픔을 기록하고 승화시켜 역사적 진실을 공유하고 불교발전을 위한 내일을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지현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종단 차원에서도 기념과 건립 추진 등 법난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반 방안을 구체화시켜 가고 있다”며 “아픔과 교훈의 역사가 새겨질 법난 기념관은 한국불교의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이자 국민화합과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난 당시 제4교구본사 월정사 국장 소임을 맡았던 원행스님은 법난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원행스님은 “법당과 요사채가 하루아침에 군홧발에 짓밟혀야 했고 스님들은 총과 칼을 든 군인들에게 영문도 모른 채 폭력을 당해야 했다”고 회상하면서 “피해 스님과 재가

자들을 대상으로 법난의 기억을 남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기념법회는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10·27법난 희생자에 대한 묵념, 경과보고, 다큐 영상 시청, 기념사, 인사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념 법회 후에는 법난의 진상을 알리고 아픔과 상처를 공유하기 위한 ‘10·27법난 2015년 미술전’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영예의 대상은 김화연 씨의 ‘기도’가 안았다. 최우수상에는 오현욱 씨의 ‘빼앗기다’, 임태지 씨의 ‘인과응보’가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김가인 씨의 ‘투혼’, 손복광 씨의 ‘구도의 길을 걸어’, 황규철 씨의 ‘불협화음’이 각각 차지했다. 특선은 김백설 씨의 ‘묵이치 않는 불심’을 비롯한 10개 작품에, 입선은 31개 작품이 선정됐다. 특별상은 일선스님의 ‘평화’가 선정됐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보호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에서는 불교문화진흥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보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찰 및 관계 기관에서는 불교문화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사례 접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성보대장 및 사찰관리대장(자산 및 재산 목록)을 통해 사찰 자산의 지적재산권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이란?

불교문화와 관련하여 종단, 사찰, 스님 또는 관계인들이 만들었거나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Ex) 불교미술, 불교음악, 의식과 의례, 출판물, 영상물, 방송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사 업 명 _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보호사업

■ 대 상 _ 사찰, 스님, 또는 관계기관 등

■ 협조요청사항 _ 1) 불교문화 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홍보
2)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사례 접수
3)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관련 계약 상황 발생 시 종단 표준계약서 사용
4) 성보대장 및 사찰관리대장 구비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사찰 자산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리대장 구비가 꼭 필요합니다)

■ 접수 기 간 _ 년 중

■ 문 의 _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02)2011-1770 / psj002@buddhism.or.kr

■ 불교문화지적재산권 안내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불교문화지적재산권 보호 매뉴얼 및 사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